

청년 예비창업농에 장학금 지원합니다

농식품부, 올 500명 내외 선발
등록금 확대·학업 장려금 지원
aT, 전국 돌며 창업특화 교육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 청년창업농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농업법안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농업법인 매출액은 33억3600만원(2015년)→36억5200만원(2016년)→38억4800만원(2017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말 기준 지역 농업법인 수는 3963개(광주 226·전남 3737)로 전년(3589개)에 비해 10.4%(374개) 늘었다. 농업법인 수는 증가했지만 연령별 종사자 수를 보면 10~30대 청년은 2937명(2016년)에서 2858명(2017년)로 오히려 2.6%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새로 만들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창업농 등록금 전액 지원=농업 분야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올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7월9일까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농식품인재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새로 만드는 등 농림부 장학금을 확대



aT는 농식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일자리성공패키지'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지난 21일 충주에서 열린 행사 모습. <aT제공>

한다. 대상은 500명 안팎으로 총 22억5000만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학업장려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장학금을 받으면 농업 현장실습 등 학기당 의무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영농 및 농식품 산업 부문에 대해 창업 또는 취업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기당 6개월씩이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1

~2학년 재학생으로, 850명에게 학기당 25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09-2114.

◇aT, 농식품 창업 토크콘서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일자리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aT '일자리성공패키지'는 농식품업 창업 선배들의 강연과 함께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의 채용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호남권에서는 8월 행사가 열리며 올해 4개 권역에서 5차례 이어진다. 지난 20~21

일 충북 충주에서 열린 1차 '일자리성공패키지'에서는 푸드테크기업 '쿠켓' 이문주 대표와 '식신' 서비스사업부 정구임 본부장이 강단에 서서 청년들에게 창업 성공비결을 전수했다. 또 'SPC', '아워홈', 'CJ푸드빌', '풀무원푸드엔컬처'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가 채용상담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농식품 분야 창업·취업을 위해 우수기업 전문가를 초청해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931-0715-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2차 운영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2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까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을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 차원 사내벤처를 육성할 목적으로 1~3월 진행된 1차 공모에는 신청한 47개사 중 8개사가 선정돼 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사내벤처사업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분사 전'과 '분사 후'로 나누어 지원을 확대했다. 사내벤처가 독립하기 전 사업화 및 연구개발(R&D)을 위한 자금 1억원을 1년 동안 주고, 2년 동안 최대 4억원의 R&D 자금을 지급하는 등 3년 간 최대 5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5월 현재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신한카드-삼성전자 등 대기업 13곳, 중견기업 8곳, 중소기업 10곳, 공기업 12곳 등 총 4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한전KDN(케이) 새롭게 등록했다. 참여기업 중 27개사는 중기부 사업을 통해 처음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달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친환경 기술, 카셰어링 관련 기술 등을 보유한 현대기아차 사내 스타트업 3곳이 독립기업으로 출범했다. 이로써 현대기아차가 독립시킨 사내 스타트업은 11개사로 늘었다.

정부는 분사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게는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하고 동반성장지수 가점(2점)을 제공한다. 또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돼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5년간 50%)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 참가 기업을 20개사 안팎으로 늘려 운영기업을 6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접수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장년 기술센터' '1인 창조기업' 신규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중장년 예비 창업자가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만 40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에는 스마트미디어, 전자출판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는 중장년 센터 3개사, 1인 센터 4개사 등 총 7개의 창업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기업은 1년 동안(최대 1년 연장) 창업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창업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1-280-7499.

순천시 IT·핀테크(금융 기술) 등 혁신 기술창업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정보문화 융합기술·빅데이터·VR(가상현실)·전자상거래 부문 등으로 선발된 14팀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 만 19~39세 순천 거주 청년으로 순천에 창업을 희망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경제공동체일자리센터 홈페이지(job-hu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역 대학들도 참신한 사업을 구상하는 예비 창업자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라이프케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오는 7월5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조선훈은 본교 창업지원센터와 첨단산학협력소에서 활동할 창업기업을 각각 6월 28일, 7월12일까지 모집한다.

화순에 있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생물의약산업 창업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외식업계, 이제는 점심매출 전쟁이다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식업계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고객과 매출은 감소하고 경쟁점포는 늘어나고 인건비와 임대료도 상승해 운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외식업계의 불안정한 상황은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일단 큰 성공 보다는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과 장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주머니가 얇아진 고객들의 저녁 문화가 바뀌고 거기에 주말여행이나 여가활동을 통해 소비가 분산되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외식업계 전체의 저녁매출이나 주말매출이 급감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외식업계의 매출경쟁 전선이 점심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로 분산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저녁매출의 급감으로 인해 점심 시간대로 더 많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후 5시쯤 문을 열어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저녁 메뉴형 외식업소들 매출과 고객 회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길어지자 결국 점심시간에도 매출을 끌어올려 생존가능성이 올라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심시간이 홀 판매와 주문배달로 양분돼 있기에 배달어플과 배달대행 사업의 발달은 이미 홀 판매와 배달판매 시스템을 확보하고 병행해온 기존 식당형 업소들 보다는 저녁메뉴형 외식업소들에게 그나마 조금은 더 수월하게 점심 매출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셈이다.

그 결과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점심메뉴의 선택 다양성이 향상된 장점이 생겼지만 외식업소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점심메뉴의 개발과 홍보마케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점심고객들의 특성상 같은 메뉴를 반복적으로 날마다 먹기 보다는 메뉴를 바꿔가며 먹으려는 니즈

(needs)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에 단순히 주변 외식업소들의 점심메뉴를 따라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을 하는 것 보다는 아예 해당 상권에 없는 차별화된 메뉴로 점심메뉴를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기존 메뉴를 재해석해 조리방식이나 샐러드나 구성 자체를 차별화시켜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점심메뉴 개발과 선택 방식이 아닐까 싶다.

점심 시간대 경쟁이 이처럼 치열하다보니 단일 메뉴 중심의 전문점들은 메뉴를 추가해 고객들의 재방문을 끌어올리는 전략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추세고 다메뉴 식당형 외식업소들은 계절메뉴와 신규 메뉴의 추가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야간 메뉴형 외식업소들은 기존 메뉴를 식사형 점심메뉴로 변화시키고 거기에 대응적이 된 메뉴 이질감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메뉴를 런칭하는 방식으로 해당 외식업소의 메뉴 아이덴티티(Identity)는 유지하는 선에서 점심 경쟁에 뛰어드는 추세다.

홀 중심의 저녁 메뉴형 외식업소들까지 점심시간에 뛰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배달어플 시장과 배달대행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외식업소들의 메뉴와 고객 관계구간도 갈수록 사라지는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장기 불황이라는 악재를 털 수 있는 호재가 과연 언제 나올까 라는 희망이나 고민을 접고 이런 힘든 상황이 비단 외식계만의 문제도 아니기에 현재의 경기상황 자체가 불황이라는 생각 보다는 일반적인 시장상황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생존전략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속속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